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 등 도내 209개 단체 대표들 “전북 발전 필수 기반시설 도민 모두가 힘 모을 때”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바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북 소재 209개 단체가 참여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 연합(수석 위원장 김정태)이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오전 11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임영길 전주상공회의소 기획조정부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이날 참석자는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 변효석 안전 모니터 봉사단 전북연합 회장, 북태만 전북상인연합회 회장, 심병태 군산시 새마을회 회장, 이희봉 군산시 이·통장 연합회 회장, 조오익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회장, 임관빈 군산시 이·통장 연합회 사무국장, 전대식 전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은생 익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조경수 군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남용우 전주시남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병대 전주상공회의소 기획실장(순위 무순) 등 12명이었으며, 이들은 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며, 2029년에는 반드시 완공되어 개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수석 위원장이 발표한 이날 성명서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의 50년 항공 오지의 사리를 떨치고, 새만금과 전북지역 발전을 견인할 필수 기반 시설”인 만큼 신속한 공항 건설 추진을 촉구했다.

김 수석 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온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각고의 노력 끝에 2019년 국가 균형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 연합이 19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발전의 필수시설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2029년 개항을 촉구한다.고 외치고 있다.

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지난해 입찰 공고 후 기본설계까지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새만금 짙바리 파행을 이유로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실시로 인해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러한 외증에 어렵게 최근 건설업체가 선정되었고, 적정성 검토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이 5개 주요 검토지표(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며,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새만금의 민간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적정 국가 예산 지원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 하기에 우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수석 위원장은 “우리 200만 전북도민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 연합의 목표는 공항 건설사업을 즉시 착공해 계획대로 2029년 개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정부 관계자들은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세 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추진하는 국책 사업인 만큼 정부는 새만금의 민

간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명백하고 확고하다.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위해 정부는 신속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적정한 국가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 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어떠한 논의와 행위도 도민들과 함께 강경하게 맞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 연합은 도내에 산재한 209개 단체가 참여해 2021년 결성되었으며, 경제, 사회, 체육 등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다.

이들은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새만금 조기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2위 유지

김관영 도지사, 7월 이어 8월에도... 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7월 이어 8월에도 2위를 유지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57.4%의 긍정평가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58.8%보다 소폭(1.4%p)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김 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째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위부터 3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58.0%(3위)와 2023년 12월 57.8%(3위)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1월 60.9%(3위), 2월 65.0%(3위), 3월 66.2%(2위), 4월 62.8%(3위), 5월 57.0%(2위), 6월 60.5%(1위), 7월 58.8%(2위), 8월 57.4%(2위) 등에 해당한다.

김 지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단 1%의 가능성에도 끊임없는 도

정으로 성공스토리를 쌓아가는 민선8기 전북자치도정의 진취적인 행보가 언론 등을 통해 전달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선8기 전북자치도정은 연이은 대기업 투자 유치(6개)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이르기까지 도전을 통한 성과를 달성했다. 최근에는 대기업 투자 유치 기업 가운데 1호 기업인 (주)두산의 김제공장 준공식이 열리는 등 공장 기동을 앞두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를 통해 기업의 불모지였던 전북이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에 선정되는 등 혁신과 전환이라는 변화를 이뤄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평가에 감사드리는 한편, 지금의 평가에 만족해 변화를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정은 계속해서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태조 이성계 역사 자산 전북 관광자원으로 활용

국회 의원회관서 정책포럼... 실감콘텐츠 개발 등 제시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자산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포럼’이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조선 건국 632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이번 정책 포럼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 대한 현대적 고찰과 함께 그가 남긴 시대정신과 역사문화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토론이 이어졌다.

제 1주제발표에 나선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이성계는 한반도 동북쪽 변두리 일개 무장에서 역왕조를 세운 태조(太祖)로 불리는 역사적 창업 군주가 됐다”면서, “전주에는 조선왕조의 뿌리가 되는 경기전·조경묘·조경단 등이 있는 만큼 태조 이성계 문화유산에 대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 2주제 발표에 나선 양영관 (사)한 국지역개발연구원 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전국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자산 중 70%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다수가 전주에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관광 거점도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태조 이성계를 테마로 하는 복합 문화시설 건립, 스몰의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당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태조 이성계 리더십 역량 강화 등 정책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제 3주제 발표에 나선 장충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조 어진, 조선 건국실화, 전주 한옥마을 등 전북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조선 역사 자원이 보존되고 있다”고 피력하면서, “태조 이성계의 역사 자산과 조선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태조 이성계 전당과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태조 이성계 자산을 활용해 실감 콘텐츠, 영화, 게임 등 융합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태조 이성계 국외정책포럼’.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강조했다.

박용희 전주시청 문화유산과장은 “전주시가 왕의 공인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태조 이성계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관광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선 이성계리더십센터 연구소장은 “태조 이성계를 통일 대한민국 통합의 아이콘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장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유적 사진전, 전북특화형 관광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태조 이성계의 건국과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전북의 광역단위 지역브랜드로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앞으로 전주는 전북이 태조 이성계의 후국·개국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조선문화의 정수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성계리더십센터(센터장 정세량)가 주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전주이씨대동종약원·농협중앙회전북본부·영농조합법인 선우비이오가 후원했다. /이만호 기자

최형열 도의원,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 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하고, 사이버공



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는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 하도록 했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각 기관별로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업무수행과 관련해 전북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21일부터

동시이사장선거 위탁관리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시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5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김재훈 기자

인천공항 출국·환승 과정서 마약류 적발 증가세

별도 단속 과정 없어...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확인 중 우연히 적발 2019년 4건 · 2022년 17건 · 작년 48건... 올 8월까지만 54건 달해

올해 8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아닌 출국과 환승 과정에서 적발되는 마약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인계 물품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환승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123건으로 밝혀졌다.

2019년 4건이던 마약류 적발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



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감소했다(2020년 1건, 2021년 1건). 그러나 2022년부터 엔데믹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하면서 17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4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2건의 마약류가 인천국제공항의 출국·환승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춘석 의원은 “출국 및 환승 과정에서 올해에만 52건의 마약류가 단속됐는데, 마약류 단속이 관세청 고유권 한이라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며 “전문적인 보안검색 인력 및 조직을 구성하고, 법무부,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출국이나 환승하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적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의 관동 실수로 보안검색 이후 반입금지물품이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은 보안검색을 더욱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춘 기자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성인 실종은 연간 7만건... 매년 1000명 숨져

민중 한병도 의원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필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은 연간 7만명이 사라지고 1,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이 7만 3,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 3,950건, 치매 환자가 4만1,781건으로 13만 9,154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6,042건으로 △2021년 6만6,259건 △2022년 7만 4,936건 △2023년 7만18,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 2,464건 △13세 1만 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3,372건 △7세 1,297건 등이었고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신고도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2021년 7,166건 △2022년 8,344건 △2024년 8,440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장애

인이 6,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149건 △40대 3,895건 △50대 3,604건 등 순이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021년 1만 2,577건 △2022년 1만4,527건 △2023년 1만4,677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만5,373건으로 가장 많고 △60대 5,202건 △50대 1,096건 △50세 미만 110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1,835건 △경기남부 8,257건 △부산 3,772건 △경기북부 2,582건 △경남 2,284건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청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춘 기자